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한역 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

—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를 중심하여 —

배 광 호 (Th. M.)

◆ 목 차 ◆

1. 서 론.....	55
2.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56
1) 집단체적 해석법 (Collective interpretation)	56
2) 개체설적 해석법 (Individual Interpretation)	58
3) 유동체적 해석법 (Fluid Interpretation)	61
3. 본문들이 증거하는 여호와의 종: 메시야.....	64
1) 제 1의 종의 노래	<중략>
2) 제 2의 종의 노래	<〃>
3) 제 3의 종의 노래	<〃>
4) 제 4의 종의 노래	66
4. 히브리 구약성경과 한역 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	69
1) 제 1의 종의 노래와 한역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	69
2) 제 2의 종의 노래와 한역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생략>	
3) 제 3의 종의 노래와 한역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	
4) 제 4의 종의 노래와 한역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	
5. 결 론	<〃>

1. 서 론

우리

의 층직한 선배들이 번역하여 물려준 한역성경(한글판개역 성경전서, 1952년판)*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큰 공헌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구약성경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들을 기초로 하여 많은 성경번역들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한국어 성경은 이러한 자료들을 접하기 전의 것을 토대로 하여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학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구약원어성경에 그 뜻이 가까운 새로운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논문에서는 방대한 구약성경의 전반적인 비교연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들” (The Servant Songs)을 중심으로 하여 마소라 성경본문과 한글판 개역 성경전서를 비교하여 연구해 봄으로 그 문제점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비교연구에 헬라어 칠십인역 (Septuagint)과 여러 성경번역본들을 참고로 하여 비교해 보고자 하며 또한 본인 나름대로 본문들을 될 수 있으면 여자적인 번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私譯)을 감히 해 보았다. 그리고 전편에 걸쳐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제로 하여 본문을 전개시켜 보고자 한다.

* 한국 성경 번역 약사를 소개하면 1887년 한국성서위원회 조직, 1892년 한국성서번역위원회 조직, 1900년 신약완역, 1904년 신약개역, 1910년 구약완역, 1912년 개역위원회 조직, 1927년 구약전서 개역완성, 1937년 신약전서 개역완성, 1952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 준하여 개역성경 수정 발행. (박용규, 한국기독교대사전, 성은출판사, 1978) p.461.

*이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약자는 다음과 같다. MT (Masoretic Text), Lxx (Septuagint, 70인역),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Syr (Syriac-version) 등.

2.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奴隸? ֶבֶן)은 누구인가?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는 학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반대 학설들이 도전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학설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들(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종의 정체를 밝혀 보고자 한다.

1) 집단체적 해석법 (Collective Interpretation)

많은 학자들은 오랫동안 여호와의 종을 하나의 집단체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 특히 반 기독교적인 정통 유대교 학자들은 여호와의 종을 집단체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을 그들의 정설로 삼고 있다.²⁾ 이들의 학설은 헬라어 역본 칠십인역 (LXX)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xx는 마소라 본문(MT)과는 달리 42:1에 야곱 (*Iacob*)이란 말과 이스라엘 (*Ioseph*)이란 말이 삽입되어

(註1) ‘종’이란 히브리어는 **תָּבִיב**으로 본래 ‘노동’ 혹은 ‘봉사’를 의미하는 **תְּבֻבָּה**에서 왔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나 주종적 예속(主從的隸屬) 관계로 사용되어 왔다. 헬라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δουλος*라는 말로 옮겨졌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속박하다’라는 뜻의 *δεω*에서 온 것이다. Gesenius는 to labour, to work, to do work(Aram어의 **תָּבִיב**, 도 to do인데 이 뜻은 **תְּבֻבָּה**와 같은 것이며), to serve의 뜻을 가진다 했고, Kohlerd Baumgartner는 arbeiten(work), bearbeiten(till ground).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일에 사용한을 말했다.(Tregelles,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6)p.598. (Köhler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Grand Rapids; Eerdmans, 1958). p.908. *δεω*는 bind, tie, tie to Something이란 뜻으로 fasten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진다(Thay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38, 1953). p.131.

2) ‘여호와의 종’이 집단체로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the entire nations Israel) Döderlein이 주장, ‘이상적 이스라엘’(the Ideal Israel) J.C.R. Eckermann이 주장, ‘이스라엘내의 경건한 소수인들’(a pious Minority Within Israel) H.E.G. Paulus가 주장, ‘선지자들’ Rosemüller가 주장, ‘제사장들’ 무명인이 주장, 그밖에 여러 학설들이 있다.(Christopher 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pp.28 - 39.

어 있다. 여기에서 LXX의 번역자들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삽입하여 본문의 ‘종’을 집단체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이다.³⁾

LXX는 ‘내종’이란 말 위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말을 쟁가함으로써 ‘여호와의 종’은 곧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유대교 학자들과 고등비평 성경 학자들은 본문의 ‘종’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신약성경의 인용(마 12:17 이하)을 과오로 돌리려 했다. LXX의 역자들이 본문의 ‘종’을 이스라엘의 집단체로 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LXX 이 후의 유대교 학자들과 비평학자들이 그 예를 따라서 그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단체 해석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본다. 또한 49:3의 종을 가리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한 말로 호칭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므로 그 종은 집단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 집단체적인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본문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4 대사에 어디를 보아도 그 ‘종’은 단수로 나와있다. 특히 사 53장은 그 종을 가리켜 3인칭 남성 단수인 ‘그’ (גַּם)란 대명사를 5회에 걸쳐 사용하고 있고 그 말은 강조 대명사인 “우리” (נוּנוּנוּ)란 말과 대조되어 있고 강하게 구별되어있다.⁵⁾ 이 외에도 종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전편에 걸쳐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호와의 종’은 분명 집단체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42:4의 “그의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율법이며 여호와의 종은 그

(註3) 김희보, 구약신학논고,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5), p.336.

4) LXX는 사 42:1을 *Iacob ὁ παῖς μου* (Jacob is my servant) *Ioseph ὁ ἐκλεκτός μου* (Israel is my chosen) 으로 기록했다.

5) 히브리어 본문에는 53:4, 5, 7, 11, 12에 걸쳐 5회로 ‘그’ (גַּם)를 나타내고 있다. 유대교 학자들이나 고등비평학자들은 달리 초대교회의 교부인 Justine martyr는 오히려 LXX의 사 42:1의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별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도들까지도 가리킨다고 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들이야말로 참 ‘야곱’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는 말했다.(김희보, op.cit., p.337)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종은 결코 집단체가 될 수 없다. E.J. Young은 종의 정체에 대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평범한 두 진영으로 낙착된다고 말하면서 첫 그룹 즉 집단주의적인 것은 이스라엘 국가나 국가의 어떤 부분 적어도 어떤 국면으로 주장되며, 둘째 그룹의 해석은 종은 개인이며 역사적인 개인이나 이상적인 개인으로서 과거나 현재 아니면 오실 사람으로 해석되는데 42:8 ~ 9과 49:1 ~ 6에서 그 어떤 의미를 제외하고는 이 집단주의적인 해석을 거절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하나의 사실 때문에 50:4 ~ 9과 52:13 ~ 53:12에 있는 종의 기술이 그런 의인화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초상이 한 그룹의 의인화로 의도되었다면 그 그룹의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반면 그 기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개인에게도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⁶⁾

2) 개체설적 해석법 (Individual Interpretation)

여호와의 종은 어떤 개인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개인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들도 많다. 소위 개체설을 취하면서도 그가 곧 ‘메시야’라고 하는데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 종을 어떤 이들은 ‘다윗’이 사 42:1의 ‘나의 택한자’라 한다.⁷⁾ 그러나 다윗은 그 ‘종’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고대 모든 사본들과 역본들은 다 한결같이 그 ‘종’에 관한 술어는 모든 미래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⁸⁾ 그러므로 다윗은 이미 고인이 된 지나간 사람이므로 그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Ivan Engell은 대단히 학적이며 예리한 입

(註) 6) E.J. Young, 구약총론, 오병세·홍반식 공역. (부산; 개혁주의 실행협회, 1977) pp.240 - 241.

7) 여호와의 종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주장 (K.F.Bahrdt and J.Konynenburg)과 이사야선지자 자신이라는 주장 (S.F.Stäudlin)과 예레미야 (Bunsen), Deutero-Isaiah (J.J.Stähelin), 스룹바벨 (Samuel Sharpe), 무명의 개인등의 주장이 있으나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들이다. (Christopher R.North, op.cit., pp.39-46)

8) 사 42:1, 2, 3, 4, 6의 모든 동사 즉 ‘종’을 주어로 하는 모든 술어는 그 어느 사본이나 역본을 보아도 (MT, LXX, The Peshitta, Targum 또는 IQISa) 모두 미래형으로 사용되었다. (김희보, op.cit., p.339)

장으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현대의 해석적 표현으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약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는 “The Ebed Yaweh Songs and the Suffering Messiah in Deutero-Isaiah”에서 현대의 해석적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구왕권 개념 (the old theology of the kingship)에서 유래했으나 이 개념에 밀착되어 있는 어떤 국가적 제한성들로부터 받는 구속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사야 53장은 이른바 “제왕적 수난의 시” (royal passion Psalms)라고 묘사되고 있는 몇몇 시편들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이러한 시편들의 본래의 상황을 보면 그것들은 제식(祭式)에 있어서의 왕의 기능을 언급한 의식서들이었다. 그러나 그 ‘종’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은 왕이 자신의 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죄로인해 죄인이 되어 죄책을 담당하는 연중행사 (an annual festival)와 관계된 하나의 의식문을 선지자들이 개조한 것이다. 이 제사에서 왕은 고백을 하며 개념적으로 그의 ‘고통’, ‘죽음’, ‘부활’과 부합하는 여러가지 상징적 행위들을 통해 속죄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의 모습은 그 왕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그는 그 의식을 담당한 왕이라는 개념의 주체와 범주를 속에 묘사되어 있는 메시야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제식에서 유래한 여러가지 격식과 표현의 양상들은 그 대망의 메시야에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이와같이 해서 그것은 다윗 계통의 메시야가 어떻게 동시에 고난의 메시야 구세주와 그리고 다윗왕조가 대망하던 실제적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동시에 본장이 그 메시야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⁹⁾ 그러나 사 42:1 ~ 9의 본문에서도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는 이 한 구절속에서도 이사야서의 다른 예언들과 서로 비교해 보아서도 그 예언은 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된다.¹⁰⁾ 그리고 “그의 기뻐하는자란 그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신약성경 마3:

(註) 9) E.J. Young, 이사야 53장, 윤영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pp.115 - 116.
10) 사 11:1-2과 사 61:1의 말씀과 비교해 참고할 것.

16, 17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¹¹⁾ 또한 사 49:1(제 2의 종의 노래)에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종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에서 ‘태’(womb)와 ‘어미복종’(bowels of the mother)이란 말을 하나의 상징적인 말로 보지 않는한 거기에서 출생할 ‘여호와의 종’은 어떤 집단체일 수는 없고 실제적인 인격체(개인)가 아닐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그 종은 곧 이사야 선지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나 그것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¹²⁾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을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 ‘내’가 21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방의 빛’(교^교나^나로^로) 또는 ‘백성의 언약’(교^교나^나구^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9:1과 49:7에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의 이 31절이 이사야 선지 자신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 더욱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떤이들은 ‘여호와의 종’이 고레스 왕이라고 말했는데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왕을 가리켜 하나님께 택한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말하였으나(사 45:4) 49:1~9의 전체내용에서 그 ‘종’은 ‘이방의 빛’이요, ‘백성의 언약’(사 49:8)이라 했으며 49:7에는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라”고 한 것은 고레스가 그 종이 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¹³⁾

(註) 11) 마 3:16, 17에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위에 임하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이 말씀은 이사야 42:1의 응답이며, 반응임을 볼 수 있다.(요 3:34 참조)

12) 사 89:3(cf. 89:19)에 “나의 택한자”란 히브리 원문은 사 42:1과 똑같이 “^{my chosen}”이다.

13) J.A. Alexander는 ‘여호와의 종’이 ‘선지자 자신인가?’ ‘선지자들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체인가? 또 고레스왕인가? 하는 주장들을 설명하고 그러나 이것은 논란이 되는 문제이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 Rosemüller와 Hitzig은 221f을 해석함에 있어 앞에 있는 단어에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 자신에게 다 적용시켰다. 그래서 “that he might bring back Jacob to himself”로 해석했다.(J.A. Alexander,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II, Grand Rapids, Zondervan), p.226.

3) 유동체적 해석법(Fluid Interpretation)

여기서 소위 유동체적 해석법을 살펴보자.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면 문제가 생긴다. 즉 사 42:19의 종이 ‘소경’이 된 것과 ‘귀머거리’가 된 것이 어찌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또한 43:10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에서 ‘나의 종’은 단수이지만 ‘나의 증인’은 복수 즉 ^교나^나로^로(Ye are my witnesses)로 되어있고 거기의 ‘종’은 곧 ‘여호와의 증인들’인 집단체적인 것을 그 언어로 보아서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의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Franz Delitzsch는 42:1~9의 ‘여호와의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집단적인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강한 개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여한 집단체에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거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집단과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사 41:8에 “나와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에서 “이스라엘 집단을 가리키는 종과¹⁴⁾ 42:1의 ‘종’은 어떤 상호 연관되는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리고 42:1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7장~12장에서나 또 다른 성경에서 보는 소위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른바 이스라엘의 축소체 내지는 응결체(凝結體)로서의 사상(embodyed Idea)을 표현하는 것이라 했다.¹⁵⁾ 그러나 응결체 사상(embodyed Idea)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 점을 말하지 않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개체인 그리스도안에서 어떻게 전체의 응결체(embodyied)인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에

(註) 14) 사 41:8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라는 이 구절의 표현방법은 42:1의 그 표현과 흡사하다. MT는 41:8을 ^교나^나로^로 ^교나^나로^로, 42:1은 ^교나^나로^로로 시작된다. 그리고 LXX에는 양자의 표현이 동일하다. LXX의 41:8은 *Iσραὴλ πᾶς μονον Iακὼβ*이며, 42:1은 *Iακὼβ πᾶς μονον*로 거의 동일하다.

15)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VII. Isaiah(Grand Rapids; Eerdmans, 1976). pp.174~175.

대해서 사 42:6의 그 종은 ‘백성의 언약’(בָּנֵי־אֶחָד, covenant) 이란 그 말과 직결되어 있다. 본래 하나님의 언약(הברית, Covenant)이란 한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택한자(the elects) 전체(as a whole)와의 관계에서 성립된 것이다.¹⁶⁾ Oscar Cullmann은 여호와의 종의 중요한 성격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확실케 하는 데 있다고 했다.¹⁷⁾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개체(Individual)이면서도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여호와와 이스라엘간의 ‘언약의 고리’(bond of covenant)요, 대표자(representative)로써의 개체인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 사 42:1에서와 4:8, 42:19, 43:10에서 보듯이 개체를 지칭하다가 곧 어떤 종체를 지칭하면서 유동적이어서 그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약의 솔이로 말하면 언약체인 그 몸(body)이 이스라엘이라면 그 머리(the head)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므로 그 머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다면 그 몸도 같은 ‘종’이라고 불러 마땅하겠다. 그 증거로써 사 40:1 ~ 9까지의 ‘여호와의 종’은 개인(메시야)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하나 곧 이어서 18절 이하의 그같은 ‘여호와의 종’은 개인이 아닌 복수형의 집단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2:1 ~ 9의 ‘여호와의 종’은 독립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몸’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요, 몸을 전제로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하는 그리스도임을 본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개체에서 집단으로 상호유동(相互流動)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제 2의 종의 노래’(사 49:1 ~ 9)에서 H.H Rowley는 여호와의 종이 한 인격체(개체)

[註] 16)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개인과의 언약이나 그의 연결된 후손 전체를 포함한다. 창 6:18의 노아와의 언약은 곧 그와 그의 ‘후손’과의 언약이었고 (창 9:9) 창 13:15의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곧 그와 그의 후손(씨)들과의 언약이었다. (창 17:7, 18:19 참고) 이 원리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것이었다. (행 2:39, 11:14, 16:31) (김희보, op.cit., p.348)

17) Oscar Cullmann은 그리스도의 여호와 ‘종’으로써 성격을 말할 때 다음과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점을 말했다. 즉 하나는 그 종이 여호와의 언약을 가능케하는 속죄자적인 대표자(Vicarious representation)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하는 대표자(reestablishing of the Covenant)란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이 두 성격은 곧 예수와 여호와의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했다.(Ibid., p.348)

인 그리스도이면서 그것이 또한 동시에 집단체인 교회(성도의 무리)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교의 계속적인 임무를 이어받은 기관인 때문”이라고 했으며 그는 그 개념이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상과 개인적인 종의 사상 사이에 동등히 뛰어나게 (par excellence) 어떤 유동체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¹⁸⁾ 그는 ‘이방인의 빛’이라는 말에 독특한 주의를 기울여 사 49:6에 여호와의 종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구절을 그대로 자기들에게 적용시켜 자기들도 그 ‘여호와의 종’의 선교적 사명을 계승했다고 보았던 것 같다.¹⁹⁾ 그러므로 사 49:1 ~ 9 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개체성과 집단성이 혼돈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그 종은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행 13:47) 그래서 김희보 교수는 결론적으로 주장하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실패자가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축소된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또 소수의 선지자들을 택하여 종의 임무를 맡겼으나 마침내는 한 개체 인격체인 그리스도로 그의 종을 삼았다. 이것이 곧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이 집단체에서 개체로 유동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메시야적 혹은 그리스도적인 유동체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1의 종의 노래’와 ‘제 2의 종의 노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종을 집단적인 명칭인 ‘이스라엘’(49:3)이라 불렀다해서 의심을 품을 필요도 없으며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예시한 그 종을 ‘우리’라고(행 13:47) 하여 집단주의적인 교회에 적용시켰다해서 당황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여

[註] 18) J.D. Douglas, The New Bible Dictionary(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0. p.1166.

19) John Calvin도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말하기를 “이 구절은 (행 13:47) 사 49:6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는데서 취해온 것인데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하는 많은 것들이 그의 사역자들(His ministers)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주시해야만 한다”고 했다.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65). p.391.

호와의 종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²⁰⁾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이 ‘그 종’은 오직 메시야로 예언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그 종’은 어떤 개인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어떤 집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 종의 모습은 일부분에서는 유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그 종’은 메시야만이 될 수 있으며, 유동체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것은 메시야에 관한 점진적인 예언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가 아닌가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3. 본문들이 증거하는 여호와의 종 메시야

North는 여호와의 종은 구원론적 메시야의 모습이라고 했다.²¹⁾ 이장에서는 본문들(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 나타나는 종의 모습을 잠깐 살펴봄으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보고자 한다.

1) 제 1의 종의 노래(42:1 ~ 9)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 인류의 구주로 나타난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분의 평화스럽고 조용한 사역방법이 기술되며 6 ~ 9절까지는 그 일의 영적효과들이 전술된다. 본장에 있는 ‘종’의 초상은 아마 국가와 그 머리가 되시는 메시야일 것이다.²²⁾ O. 42:1 –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 공의(公義)를 단순한 유대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교민, to the gentiles, 혹은 nations) 베푼다고 한 것은 그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떤 왕이거나 선지자 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Calvin이 말한바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일 수 밖에 없다.²³⁾

〈중 략〉

21) J. D. Douglas, op.cit., p.1166.

2) 제 2의 종의 노래(49:1 ~ 6)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종은 그 국가와 머리되신 메시야로 속박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진술되고 있으며 7 ~ 12절은 여호와가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종을 예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13 ~ 16절은 여호와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원수들이 멸망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²⁴⁾

〈중 략〉

3) 제 3의 종의 노래(50:4 ~ 9)

4 ~ 9절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 자기 슬픔을 묵상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 슬픔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는다. 10 ~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를 신뢰해야함을 말하고 구원의 길이 진술되며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이 파멸될 것을 말해준다. 50장에서 그 종은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메시야로서만 간주되어진다.²⁵⁾

〈중 략〉

22) E. J. Young, 구약총론, op.cit., p.241.

23) 공의(公義)의 해석에 관한 것들을 뒷편의 한글개역판 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사 42:1)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John Calvin은 사 42:1의 이 귀절의 해석을 그리스도 이전에 있어서는 참 진리는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고(시 96:2), 이방은 오직 외인이었음(엡 2:12)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이 예언은 어떤 왕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고, 오직 장차 새시대의 문을 열 메시야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John Calvin, The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Isaiah, Vol. III.Grand Rapids: Eerdmans, 1948), p.284.

27) E. J. Young, 구약총론, op.cit., p.243.

31) E. J. Young, 구약총론, op.cit., p.242.

4) 제 4의 종의 노래 (52:13 ~ 53:12)

위대한 성경학자인 J.Gresham Machen은 이사야 53장의 메시야를 표현하기를 “만약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관해 생각되는 구약성경의 한 귀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무비(無比)의 이사야 53장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심지어 신약성경구절들보다 더욱 즐겨 그장을 읽는 때가 자주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代贖)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단코 이사야 53장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명백한 예언은 없다고 일반 기독교인은 말하고 있다”고 했다.³⁵⁾ 여기 53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임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8:26 ~ 40 절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본장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전도자 빌립을 만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사 53장에서 이 내시의 질문처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의 종은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어떤 위대한 종교적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눈을 가진 성도는 그 토록 해석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종’ 바로 그 분은 주후 1세기에 갈보리 산위에서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들을 잘 살펴볼 때 마치 갈보리산을 마주대한 듯한 느낌을 구절구절을 읽어갈 때마다 느끼게 될 것이다. 고신대학원 원장인 홍반식 박사의 미국 드람시 대학(Drama University)에서의 유대인 학자들과의 변론을 참시 소개하면 유대인 학자들은 본장 사 52장~53장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을 집합명사로 취급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 하며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에다 적용시킨다.(사 4:8, 43:10 등에 그 근거를 둔다) 그러나 사 53장에 와서는 적잖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즉 여호와의 종(羔羊)이 동격인 ‘그’(ך이나) (3인칭 단수) 와 ‘우리’(ך이나) 와의 관계에서 ‘종’을 이스라엘에다 적용시

(註) 35) E. J. Young, 이사야 53장, op.cit., p.8.

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이들은 ‘그’가 집합명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ך이나) 역시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선지서에 있어서 인정변화는 허다며 이러한 논법은 자기가 자기자신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talking about himself)라고 말한다.³⁶⁾ 그러나 사 53장의 3인칭 남성단수 동사들이나 3인칭 소유격 접미어는 1인칭 복수 ‘우리’와 동격으로 취급하려 할 때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ך이나)와 ‘우리’(ך이나)는 인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존재들로서 나타난다. 여기의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며 구속받은 자의 한 사람이 분명하다.(4~6절) 반면 ‘그’는 52:13의 ‘나의 종’(羔羊)이므로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 본장에 나타나는 ‘그’(ך이나)는 첫째로 개인적 존재이다. 52:14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집합명사로 볼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준다. 14절의 여자적 번역은 “많은 무리가 그대(혹은 그)에게 대하여 놀라게 된 것은 그의 얼굴이 그 어느 사람보다(상어) 상하였고 그의 모양은 인생보다 더 상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동시에 53:3의 ‘슬픈 사람’(羔羊)은 개인적인 성격을 밝히 보인다. 또 유대인 학자들 중에는 53:9의 ‘그의 죽음들’(死の間)이 복수인 것을 근거로 하여 ‘나의 종’(羔羊)이 이스라엘 민족을 표시하는 집합명사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들’이란 말이 같은 절에 있는 ‘그의 무덤’(坟墓, 단수)과 동격이므로 위의 유대인들의 학설의 논거를 약화시킨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그의 죽음들’이란 말을 강세형 복수(an intensive plural)로 취급한다. 둘째로 그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는 수난자이다”고 한다. 53:6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허물을 저에게 지움”이라든가 53:10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죽죄제물이 되게하신”것 등이 이를 가리킨다. 세째는 ‘그’는 ‘우리’로 나타난 대속자라는 것이다. 53:5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31절에서 볼 수 있

(註) 36) 박윤선, op.cit., p.508.

다.³⁷⁾ 본문에서는 우선 ‘종’이라는 주어가 전문에 걸쳐 단수형(약 70회)으로 나타난다.³⁸⁾ 본문 53의 본문들은 이 논문의 본론 부분 ‘제 4의 종의 노래’와 ‘한역 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장의 여호와의 종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분명 ‘제 4의 종의 노래’(52:13 ~ 53:12)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수난의 현장과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는듯한 느낌을 받게될 것이다. 52:13 ~ 15에서 종은 지도자이며 존귀하게 될 것이므로 그가 취해야 했던 비천만큼 존귀하게 될 것을 말함으로 그 종은 메시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 해지며 53:1에서는 메시야로 선포되었지만 믿는이가 적고 2절은 그의 용모는 천하며 3절에서는 그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4 ~ 6에서는 비록 그의 특징은 슬픔이지만 그 슬픔은 희생적이며 그는 이것을 타인의 피해문에 참으며 7 ~ 8절은 종은 무죄이지만 불의의 재판에서도 참을 것이고 9절에서는 죄가 없지만 그의 죽음은 부자와 악인과 같이 될 것이며, 10 ~ 12절은 그런고로 하나님은 그를 높혀서 많은 불의한 자들 대신에 그를 대속자로서 세우셔서 사람들을 중보하실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장에서의 여호와의 종은 메시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³⁹⁾ 그래서 현대 유대교 신학자인 Reuben Leby는 본장의 ‘종’을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은자들’(the remnant Israel)에게 적용시킨 후 그 결론에서 본장(사 52:13 ~ 53:12)의 약간의 부분의 사본의 오기(Corruption)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고 말하면서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본장의 ‘종’은 집단적인 ‘남은자들’(the Remnant Israel)에게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다고 솔직히 고백했다.⁴⁰⁾ 그러므로 ‘제 4의 종의 노래’에서 비메시야적인 집단체적, 비그리스도적인 개체성 등을 주장했으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수세기에 걸쳐 그 ‘종’은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일부 유대교 학자들과 일부의 현대주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학설로 되어오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註) 37) Ibid., p.509.

38) 김희보, op.cit., p.12(53:8의 주 참조)

39) E. J. Young, 이사야 53 장, op.cit., p.243.

40) 김희보, 제 4의 종의 노래, (신학지남 44권, 1977), p.14.

4.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한역 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

1) 제 1의 종의 노래와 한역 구약성경과의 비교연구

○ 42:1 — 보라! () 가 MT에서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데 비해 한글 성경에서는 뒤에 나오며 LXX는 중간에 위치하는데 어순(語順)이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의 종’은 MT와 한역성경은 동일한 것이나 LXX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단어가 붙어 있다. 이유는 41:8의 31절과 같이 겉치레 형식으로 보여진다고 Christopher R. North는 말하고 있다.⁴¹⁾ Luther의 독일어 성경과 RSV, KJV, NASB, 화란어 성경(BijBel)과 일본어 성경은 우리말 개역성경과 어순이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유대교 학자들과 고등비판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종’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신약성경의 인용(마 12:17 이하)을 파악으로 돌리려 했다.⁴²⁾ 분명 LXX의 역자들은 본문의 ‘종’을 이스라엘의 집단체로 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⁴³⁾ ‘내가 불드는 나의 종’의 해석문제가 여러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Calvin은 두가지로 해석하기를 ‘I will lean upon him’과 ‘I will uphold him’인데 어떤이들은 능동적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주인이 신실한 종에게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註) 41) LXX에서 42:1에 Ιακωβος τοιας μου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1:8의 경우와 같이 명백히 하나님의 형식적인 것으로 Christopher R. North는 말하고 있는데 41:8의 ιακώβ ιακών은 MT와 한역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Christopher R. North, op.cit., p.117) IQISa는 ιακών을 ιακών으로 기록하였으며 NIV와 한글공동번역성서는 “여기에는 나의 종이 있다”고 번역되어 있다.

42) 유대교 학자들과 고등 비평학자들은 종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에 초대교회의 교부인 Justin martyr은 오히려 LXX의 사 42:1의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별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제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성도들까지도 가리킨다고 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참 ‘야곱’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희보, 구약논고, op.cit., p.337)

43) 사 42:19에도 2회 거듭하고 ‘종’이란 말이 MT 사본에는 ‘내종’(내자)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LXX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οι πατέρες로 다른 하나는 οι δούλοι로 되어 있다. 이것 역시 LXX는 그 ‘종’을 이스라엘이란 집단으로 본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LXX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종을 번역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한 점이다.(Ibid., p.337)

서 그의 ‘기름부은자’에게 ‘기댄다’(lean on)고 할 수 있으며 또 분명히 여러곳에 나타나는 ‘내가 그를 …… 하겠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⁴⁴⁾ 그리고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의 “공의”(公義)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는데 E.J. Young은 **△△△**(the judgment), a standard or norm과 일치하는데 서있는 judgment로 보았고, Calvin은 “그리스도는 전세계를 하나님의 권위아래로 그리고 그에게 순종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보내졌다”고 말했다.⁴⁵⁾ 또한 Leupold는 ‘justice’로, Hengstenberg는 ‘Recht’로 영어의 ‘right’로 즉 ‘law’와 ‘statutes’를 포함한 것으로 보았으며, Delitzsch는 ‘right’로, F. Delitzsch는 ‘생명의 법’(νομός)로서의 참종교, 참진리로 보았다. 또한 이 **△△△**는 본문에 세번 기록된 것으로(1,3,4절) 이것은 이 말이 본문(42:1~9)에 있어서 중심사상이 됨을 밝혀준다. 이 말은 ‘공의’ 또는 ‘심판’으로 번역되는 말이나 심판이라고해서 정죄를 위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한글공동번역성서는 “바른 인생 길을 펴 주리라”고 번역했으며, KJV만 ‘judgment’를 지지하고 NIV, TEV, NASB, RSV는 ‘justice’로, 일본어 성경은 ‘길’(道)라 번역했고, 독일어, 화란어성경은 ‘Recht’로, F. Delitzsch도 같이 번역했으며, Calvin은 ‘judgment’로, Luther는 ‘justice’로 특히 Barnes는 ‘religion’으로 번역한다.⁴⁶⁾ 또 어떤 번역자들은 이 말

(註) 44) John Calvin, op.cit., p.285. 한글공동번역성서는 ‘내가 믿어주는 자’라고 했으며, NIV, NASB, KJV, RSV는 모두 ‘up-hold’를 지지하고 있다. **기밀축**는 ‘to seize’ or ‘to hold’로 가 붙어서 언제나 ‘to lay hold of’, ‘to hold fast’, ‘to support’를 의미하게 된다. (Hengstenberg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and a Commentary on the messianic prediction, Vol. III. Edinburgh, T & T. Clark. 1858.), p.208. E.J. Young은 ‘I hold him fast’로 번역. (E.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Grand Rapids : Eerdmans, 1979) p.111. F. Delitzsch는 Sustinere(to lay firm hold of and keep up right)로 보았다. (F. Delitzsch, op.cit., p.175) Albert Barnes는 ‘uphold’, Leupold는 ‘support’로, Alexander는 ‘hold’로 번역했다. 그리고 Calvin은 ‘I will uphold him’으로 번역했다.

45) E.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op.cit., p.111.

46) Albert Barnes,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III. (Boston : crocker and brewster) p.103.

을 좀더 보편적인 용어인 ‘진리’(truth)란 말로 번역했다. 그러므로 이 **△△△**가 ‘공의’하거나 ‘심판’이거나 ‘법’이거나 ‘진리’이거나간에 여호와의 종이 그것을 베푸는 지역은 단순히 유대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גַּוְנִים**, to the Gentiles, or nations)라고 했으니 그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왕이거나 어떤 선지자일 수는 없으며 그것은 오직 Calvin이 지적한 바와같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일 수 밖에 없다.⁴⁷⁾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란 번역은 주로 ‘Gentiles’와 ‘nations’로 분류되어 있는데⁴⁸⁾ 이방민족들에게(**גַּוְנִים**)란 말은 복수인데 우리 한 역성경은 ‘이방에’라는 단수로 되어있다. 또한 “공의를 베풀리라”란 구절에서 동사 ‘베풀리라’는 말은(**שׁׁלַח**)란 말로 곧 ‘내어보낸다’는 뜻이다.⁴⁹⁾ 42:1의 사역(문장이 부드럽지 못해도 가능한 한 여자적인 번역을 해 보자고 함) “보라! 내가 그를 지지하는 종, 나의 택한자, 내 영이 기뻐하는 자를! 내가 나의 신을 그 위에 주었다. 그가 이방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 42:2 – 이 절의 번역은 MT와 LXX과 한역성경이 비교적 같이 번역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자 아니 하며……”에서 사실상 ‘목소리’란 단어는 없는 것이나 의미상으로

(註) 47) 김희보, op.cit., p.341.

48) KJV는 ‘Gentiles’, NIV, NASB, RSV는 ‘the nations’, TEV는 ‘every nation’, 일본어성경은 ‘여러나라’, 공동번역은 ‘뭇민족’, 독일어성경은 ‘Heiden’(이교도), 화란어성경은 (Volken, peoples, nations), Luther, Leupold, Allan A. Macrae는 ‘the nations’로, Calvin, F. Delitzsch, Barnes는 ‘the Gentiles’로 번역했다.

49) **שׁׁלַח**란 말은 **שׁׁלֹּחַ**에서 온 말로 NIV, TEV는 ‘bring’으로, RSV, KJV, NASB는 ‘bring forth’로, 화란어성경은 ‘openbaren’(reveal, disclose)로 번역했으며, Calvin은 이 동사를 ‘임으로 내어 보내는 것’ 곧 ‘설교한다’는 뜻으로 이용했다. 그렇다면 ‘공의를 베풀다’는 말은 두 말없이 설교자의 임무를 표현함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사야 41:27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גְּבָרָה**)란 말은 곧 42:1의 ‘여호와의 종’을 지칭함이 분명하다. ‘기쁜 소식을 전할 자’란 이 **גְּבָרָה**는 선지자 혹은 그 동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 40:9, 4:27, 52:7 등), (김희보, op.cit., p.321) Calvin은 그의 이사야주석에서 “Christian was sent in order to bring the whole world under the authority of God and obedience to him; and this shews that without him everything is confused and disordered. (John Calvin, op.Cit. pp.286 - 287)

는 통한다 할 수 있겠으며 ‘높인다’란 말의 **אָלֶת**? 는 **אָלֶת**에서 온말로 ‘들어올린다’(lift up)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Targum에서는 **רֹאַר**? (roared as lion)으로 사용되었다.⁵⁰⁾ 이 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은유와 평화와 끝없는 견손을 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마 11:28 ~ 30) 마 12:16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이사야 42:2의 종의 태도와 너무도 부합되는 것이다.⁵¹⁾

Hengstenberg도 **אָלֶת**?를 ‘he shall lift up’으로 번역했으며 RSV와 KJV와 Luther는 ‘lift up’을 지지한다. 42:2의 사역—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며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소리가 거기에 들리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 42:3—‘상한 갈대’를 E. J. Young은 ‘bruised reed’로 번역했는데 ‘상한’(**בְּשִׁבְעָה**)은 ‘부순다 혹은 조각낸다’의 뜻을 가진 것으로 ‘꺾지 아니한다’는 (**בְּשִׁבְעָה**)이란 말로 ‘to break’, ‘to break pieces’의 뜻으로 ‘부순다’는 말이 더 오히려 가까운 것 같다.⁵²⁾ E. J. Young은 ‘he will not be crushed’ 혹은 ‘he will not go to pieces’로 번역했으며⁵³⁾ ‘꺾져가는 등불’의 등불은 **נָאַמְפָּה**는

(註) 50) Targum의 **רֹאַר**? (roar)는 Targum 아모스 1:2, Targum 요엘 4:16의 것과 함께 **רֹאַר**? (make a noise)를 가진다. Beer (BZAW 33, p.30)은 마태복음 12:19의 **κραυγάσει** (cry out)의 독법에 관해 논평을 했다. 두운 (Alliteration)은 **רֹאַר**?을 친성한다 (Christopher R. North, op.cit., p.117).

51) 마 12:16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어서 12:17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는데 42:1-4까지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의 인용은 MT의 신바”로 시작하여 본문 42:1-4까지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의 인용은 MT의 것을 그대로 여자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마태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석적인 인용을 한듯 보인다. 그러나 이 인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즉 은유와 평화와 끝없는 견손은 여호와의 종과 너무도 부합하는 것이다.

52) Gesenius는 **בְּשִׁבְעָה**는 ‘to break, dash in pieces’로 번역했고, F. Delitzsch는 **בְּשִׁבְעָה**는 What is cracked, and therefore half broken, **נָאַמְפָּה**는 Which is burning feebly, and very extinguished. NIV, NASB, KJV, RSV는 ‘a bruised reed’로, 일본어 성경은 ‘상한 갈대’, 독어 성경은 Geknickte Rohr (꺾어진 갈대), 화란어 성경은 (Het geknickterriet, crack reed)로 번역되었다.

53) E. J. Young은 여기서 ‘servant’는 약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느냐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Tertullian은 the reed를 Israel의 신앙으로, the flax를 이방인에 대한 순간적인 열심 (the momentary zeal)으로 언급하였으며, Hahn은 ‘갈대’를 하나님과의 진리에 서있지 못하는 윤리적 부패속에 있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op.cit., p.113). NIV, KJV, NASB, RSV, 화란어는 ‘not’ break’로, 일본어 성경은 ‘꺾지 않으며’, 공동번역성서는 ‘잘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flax (아마, 아마의 섬유)를 말하며 ‘꺾져가는’의 **נָאַמְפָּה**는 불꽃이 꺾져가는데 사용되는 ‘failing, weak’로 사용된다.⁵⁴⁾ 그러므로 ‘꺾져가는’이란 말은 무난한 것 같다. 여기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것이며’란 말은 여러가지로 번역이 되어지는 말인데 **τήλος**는 Kittel 성경 편집자는 **τίλος**로 읽을 것을 제안했다. LXX는 **εἰς αληθεῖαν** (to truth)으로 기록되었으며, KJV는 ‘unto truth’, Hitzig, Knobel, Delitzsch는 ‘according to truth’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진리로’란 말의 번역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며 ‘공의를 베풀것이며’의 ‘공의’는 앞에서도 다루어진 문제이며, ‘베풀리라’는 말도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될 수가 없다.⁵⁵⁾ E. J. Young은 ‘he will cause judgment to go out’로 번역하면서 **נָאַמְפָּה**를 ‘he will bring out’로 번역을 했다. 42:3의 사역—하나의 상한갈대를 그가 부수지 아니할 것이며 꺾져가는 등불을 그가 끄지 아니할 것이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 42:4—‘쇠하지도 않을 것’이란 **נָאַמְפָּה**는 힘이 없기되는 (to feeble), ‘힘이 떨어지는’ (to fall in strength)으로 마음의 상태에 연관시켜서 말하는 단어이다.⁵⁶⁾ Hengstenberg는 ‘He shall not become dim’으로 번역했다.⁵⁷⁾ 그리고 LXX에는 **ἀναλαμβαῖω**로 사용되어 그 뜻은 ‘take up’ 혹은 ‘carry’ 등의 뜻으로 의미가 좀 멀다할 수 있겠다.⁵⁸⁾

(註) 54) Gesenius는 failing, weak, 특히 사 42:3에 거의 불꽃이 없는 약한 불이 꺾져가는 것을 말할 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했다 (Gesenius, op.cit., p.384). 공동번역은 ‘깜박거린다’하여로 번역되었으며, RSV, KJV는 ‘not quench’로 번역했으나, NIV (not snuff out), NASB (not extinguish), TEV (put out), 화란어 (uitdoven, quench, extinguish), 독일어는 (auslosen, 끌어놓다)로 번역했다.

55) RSV, KJV는 ‘bring forth’, Alexander, Luther, Calvin도 ‘bring forth’, 공동번역성서는 ‘끌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퍼리라’라 했다.

56) Gesenius, op.cit., p.384.

57) Hengstenberg, op.cit., p.217. 일본어 성경 (쇠하지 않으며), NIV (not falter, 비틀거리다, 넘어질뻔하다, 움칫하다 등), 독어 TEV (not lose), 독어 (verlossen, go out), 화란어 (kwijnen languish, droop), Calvin은 (not faint), Leupold (be dimmed), Luther, Macrae, Barnes는 (not fail)로 번역했다.

58) **ἀναλαμβαῖω**는 ① take up $\epsilon\iota\varsigma\tau\omega\eta\pi\alpha\sigma\alpha\omega$ ② take up in order to carry ③ take to oneself ④ take a long a travel companion ⑤ take in hand로 사용되어진다 (W. Bauer,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56. KJV, RSV, NIV는 ‘be discouraged’, 공동번역성서는 ‘용기잃는 일없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וַיַּרְא** 는 ‘낙담하지 아니하고’라고 번역되었는데 Gesenius는 **וַיַּרְא** 동사의 어떤 형태들은 미래형으로 **וַיַּרְא**로 나타난다고 했다.⁵⁹⁾ **וַיַּרְא**는 ‘to run’이란 뜻을 가진 것인데 Hengstenberg는 ‘run away’로 번역하여 ‘He shall run away’로 번역했으며, Lupold은 ‘nor be discouraged’로, Barnes는 ‘nor be weary’로 번역했다. 그리고 “그 교훈(**גְּדֹשָׁת**)을 앙망하리라”는 말은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뜻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다. LXX도 비슷한 의미로 번역했다.⁶⁰⁾ KJV, RSV, TEV, NASB, 화란어, 독일어, 공동번역성서등은 모두 ‘wait for’로 번역을 했다. 여기에서 ‘쇠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3년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복음전도가 세상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세상에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천국운동이며, “섬들(이방)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의 교훈은 율법(**תֹּהֶלֶת**)이나 종교적 교훈을 말해 주는 것이므로 이 문장의 뜻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⁶¹⁾ 42:4의 사역—그가 땅에 공의를 세우기까지 그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도망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섬들이 그의 법들을 기다릴 것이다.

○ 42:5—사실 42:5과 6절은 서로 연결되는 구절이다. 5절에는 하나님의 만물창조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위대하심을 알아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구원사역의 확실함을 믿게하려는 것이다. E. J. Young은 하늘을 창조한 말에는 **וְנִזְמָן**을, 땅에는 **וְנִזְמָן**로 사용한 것을 밝히고 있다.⁶²⁾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הָרָא**)을 주신다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신

(註) 59) 미래형으로 **וַיַּרְא**, Niph, **וַיַּרְא**, 명사는 **וַיַּרְא**. Christopher R. North는 **וַיַּרְא**는 **וַיַּרְא**로 읽을 것이다며, Niph는 **וַיַּרְא** 이라고 했다. (Christopher R. North, op.cit., p.117) Koehler Baumgartner에는 Qal, ipf. 3m.sg로 eindknicken (genknick werden) be crushed, broken으로 되어있다.(Koehler Baumgartner, op.cit., p.908)

60) 우리말의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교훈(**גְּדֹשָׁת**)은 **לְמַזֵּן**이란 말로 앙망이라고 번역되었는데 Niphal의 미래형으로 **לְמַזֵּן**으로 piel과 Hiphil형으로 ‘소망’에 적절히 사용되는 말로 ‘to expect’, ‘to hope’, ‘to wait’, (piel), ‘to wait for’(Hiphil)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Gesenius, op.cit., p.346). LXX에는 **Ἐλπίζω**로 기록해 놓았다.

61) 박윤선, op.cit., pp.399~400.

62)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op.cit., p.400

다”는 뜻을 말하며⁶³⁾ ‘펴신다’는 말은 **נָסַע**의 Qal, 분사, 임으로 그 뜻이 extend, stretch out 등의 뜻을 가졌으며 ‘창조하여’란 말은 거의 모든 번역에 다 ‘created’로 통일하고 있으며 ‘펴시고’란 말은 NIV, TEV, NASB, KJV, RSV도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도 지지하고 있다.⁶⁴⁾ 42:5의 사역—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내시고 땅을 내시고 그것의 소산들을 내시고 땅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안에서 견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42:6—우리말 성경의 “내가 너를 보호하며”라고 번역된 것에 대해 Christopher R. North는 “너를 지킬 것이다”(**נָצַרְתָּ**)는 혹은 **נָצַרְתָּ**이 올 수 있을 것인데 후자에 그 의미를 더 둔다고 했다.⁶⁵⁾ Delitzsch도 “I keep thee”로 번역했다. ‘이방의 빛’(**גֹּאֲגָרְתָּ**)은 LXX의 어떤 사본들 특히 B(Codex Vaticanus)의 첫번째 사본에는 빠져있다.⁶⁶⁾ IQISa는 **וְנִירָא**가 빠져있다. 여기 6절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특별히 여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한다는 말은 곧 여호와의 종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과 세운 여호와의 언약의 중보자로 세운다는 뜻이다.⁶⁶⁾ 여기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중에 ‘백성’(**בָּנָה**, people)이란 말은 **גָּתָּה**(이방, Nations, Gentiles)란 말과 대조되는 말이다. 사 42:6에 보는 그대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בָּנָה**)에게는 언약(**אָגָּדָה**)의 중보가 되고 이방인들(**גָּתָּה**)에게는 빛

(註) 63) 박윤선, op.cit., p.400. KJV, TEV, NASB, RSV, NIV는 모두 다 ‘stretched them out’로 번역했으며, 독어 성경은 (ausbreitet)펴다, 펼치다, 화란어(**ui tibreidde**)와 거의 같은 뜻으로 번역했으며, 일본어 성경은 (ひきき, extend, prevail)의 뜻으로 번역했고, 공동번역성서도 ‘펼치시고’라고 했다.

64) Christopher R. North, op.cit., p.131, NIV, RSV, KJV, 독어, 화란어, 일본어 성경 등 모든 번역본들이 ‘keep, watch, guard’의 뜻으로 번역되었다.

65) Ibid., p.131. NIV, RSV, TEV, NASB, 독일어, 화란어, 일본어 성경, 공동번역성서 등 모든 성경번역본들이 ‘빛’(light)을 번역에 포함시켰다.

66) Albert Barnes는 사 42:6의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으로 세웠다는 이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 같은 메시야 예언인 미가서 5:5을 지적했다. 거기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될 것이다”고 했는데 그 뜻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은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말함이다.(엡 2:14 참조) (A. Barnes, Notes on the old Testament Isaia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6, Vol. II. p.162 참조)

(**גָּסֶךְ**)이 된다. 본래 백성이란 말(**גַּזְחֵן**)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גָּזֶב**이란 말은 이방의 사람을 말한다. 한번씩 이스라엘 백성들도 (**גָּזֶב**의 단수, nations, 우리 번역은 족속)라고 사용되는 때가 있으나(출 33:13) “이 족속을 주의 백성(**גַּזְחֵן**)으로 여기소서”와같이 그런 때는 결단코 ‘여호와의 족속’ 또는 주의 족속(**גָּזֶב**)이라고 하지 않는다.⁶⁷⁾ 그러나 사 42:6의 본문에 있어서는 F. Delitzsch가 지적한 바와같이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 (**גָּזֶב כָּבֵד**)이라고만 하지않고 동시에 ‘이방의 빛’(**גָּמְלֵךְ גָּמְלֵךְ**)이라고 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새언약(Covenant)이 세워져 이스라엘이나 이방이 구별없이 될 것을 의미한다.⁶⁸⁾ 고대 히브리인 학자들 중에도 LXX의 역자들은 본문 42:1에 ‘내종 야곱’, ‘나의 택한자 이스라엘’이라고 함으로 그 ‘종’은 곧 ‘이스라엘’이요, 그 단체임을 밝히려 했으나 같은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Targum의 아랍어역에는 그와달리 메시야란 아람어(**أَنْبَيْلُ**)를 보충하여 번역했다. 거기에는 ‘나의 종 메시야’로 되어있다. 이로 보건대 고대 히브리인들도 LXX에서 보듯 헬라계 히브리학자들은 그 ‘종’을 메시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⁶⁹⁾ 42:6의 사역—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으며 내가 너의 손을 불잡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들의 빛으로 줄 것이다.(우리말 성경—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 42:7—‘밝히며’는 **פָּגַע**란 말로 ‘to open’이란 뜻인데 이 소경은 육체적 소경이 아니요 영적인 소경이 아니요 다만 죄의 결과로 인한 소경 상태이다.⁷⁰⁾ 모든 번역본에도 ‘to open’으로 번역되었다. ‘간’(間)의 **גָּמְלֵךְ**은 감옥(prison) 같은 갇힌 곳을 의미

(註) 67) 김희보, op.cit., pp.343-344.

68) Ibid., p.344.

69) 사 42:1절 뿐만아니라 43:10과 52:13에서도 **אַנְבֵּלִים אַנְבֵּלָה**로 되어 있다.(Ibid. pp.344-345).

70) E.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p.121. 영어번역(NIV, RSV, KJV, NASB, TEV)과 독일어, 화란어, 일본어, 공동번역성서도 모두 ‘to open’으로, Alexander, Leupold, Barnes도 동의함.

하는 말이며⁷¹⁾ **שָׁבֵת**는 감옥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흑암에 처한 자’란 말의 ‘처한자’의 여자적인 번역은 **שָׁבֵת**(to sit)이란 뜻이다.⁷²⁾ “나오게 하리라”는 말도 **שָׁבֵת**란 말로 바로 번역한 것이다.⁷³⁾ LXX도 다른 이상한 번역이 없는 구절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 61:1 이하에도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소경 같은 인생의 영이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며 죄악에 결박되어 옥에 갇힌듯이 부자유하는 인생을 영적으로 해방함을 말씀한 것인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일이다. 42:7의 사역—소경의 눈을 뜨게하시며 감옥으로부터 갇힌자를 구원시키시며 어둠에 앓아있는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 42:8—다른 번역본들도 대부분 이절이 같은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יְהֹוָה**)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히 13:8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않으신다”고 기록했다. Calvin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를 언급한다고 했다. 이 견해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가 그의 약속들을 수행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맥의 정확성에서는 결여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약속하신 것을 행하심을 거절하시므로 자기자신을 부인하시지는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⁷⁴⁾ 42:8의 사역—나는 여호와며 그가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나의 친양을 새긴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 49:9—우리말 성경의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란 첫의 **גָּמְלֵךְ**

(註) 71) **גָּמְלֵךְ**은 **גָּמְלֵךְ**에서 온 말로 그 뜻은 ‘to shut’인데 시 142:8, 사 24:22에는 Prison으로, 대부분의 번역들도 Prison과 dungeon을 사용하고 있다.

72) NASB는 dwell로 번역했으며, 대부분의 성경들(NIV, RSV, TEV, KJV, 독어, 일본어, 화란어성경)은 ‘앉아 있는’(to sit)로 번역했으며, Alexander는 ‘dwellers’로 번역했다.

73) KJV, RSV, NASB, 일본어성경 등은 ‘bring out’로 번역했으며, NIV는 deliver로 번역했다.

74) John Calvin, op.cit., p.296.

은 first, former의 뜻으로 의역으로 되어 있다.⁷⁵⁾ stier는 **기고식**(the former things)은 ‘시작되기전’으로 번역됨으로 **나온다**(to sprout forth) ‘일어나기전’으로 번역함이 더 가까울 것 같다. 사실 많은 번역본들이(NIV, KJV, NASB, RSV, 일본어성경) ‘일어나기전’에 동의하고 있으며 공동번역성서는 ‘spring forth’의 의미를 쓰아 ‘싹도트기전’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절의 말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성령의 역사로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오시리라한 여호화의 종을 통하여 미래의 큰 구원(the great salvation through the servant) 즉 새일(the New things)을 선지자가 고할 수 있게된 것이다라고 했다.⁷⁶⁾ 42:9의 사역—보라! 전의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가 새일들을 선포한다. 그것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듣게 할 것이다.

2) 제 2의 종의 노래와 한역성경과의 비교연구

3) 제 3의 종의 노래와 한역성경과의 비교연구

4) 제 4의 종의 노래와 한역성경과의 비교연구

〈생략〉

(註) 75) KJV, RSV, Alexander, Barnes, Macrae 등을 “the former thing”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어성경과 TEV은 우리말의 ‘전에 예언한 일’의 뜻으로 되어 있다. F.Delitzsch는 first로 번역했다.(F.Delitzsch, op.cit., p.181). Hengstenberg는 Cyrus에 의해 포로된 자들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했다.(Hengstenberg, op.cit., p.224)

76) E.J.Young, op.cit., pp.123-124. 박윤선 박사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예언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대인이라면 예언 성취의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일찌기 예언하셨던 것이 벌써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때에 예언되는 사람의 구원운동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요 13:19) “내가 새일을 고하노라”고 한 말씀은 1절~7절에 관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에 대하여 예고하신다는 말씀이다.(박윤선, op.cit., pp.401-402)

고려파의 形成과 조직

박춘동(제37회)

◆제일영도교회 강도사

A. 총노회의 조직

일제 하의 기간동안 한국교회가 범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므로 한국교회의 정화와 신앙의 순결을 통한 재건을 시도했던 慶南法統老會(고려파)는 도리어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말았음은 이미 言及한 바다.

36回 總會에서 실체적으로 결연을 당한 慶南法統老會는 1년이 지나도록 總會의 태도가 변함이 없자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에서 모인 57回 老會에서 總老會 조직을 결의하고 목사 50명 장로 37명의 종대로 임시회장 이약신 목사 사회로 그날밤 대한예수교長老會總老會¹⁾를組織하였다. 임시회장 이약신 목사가 總老會 설립취지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²⁾

趣旨: 현 대한 예수교長老會 가설 총회는 본 장로회 정신을 떠나서 이교파적으로 허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침된 예수교 장로회 總會로 계승하기 위하여 總老會를組織함.

目的: 전통적인 대한 예수교長老會 정신을 지지하는 전국교회를 규합하여 통괄하여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하여 法統總會를 장차 계승키로 함.

(註) 1) 총노회는 총회로 구성할 법적 노회의 성원이 안되므로 경북지방회, 전라지방회를 구성하여 총회라 하고 6회(1956) 때부터 경남, 부산, 진주, 경북, 전라, 경기 6노회로 총회를 구성하였다.

2) 최제건, 신사참배와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에 관한 연구, (연대: 연합신학원, 1974), p.118.